‘공연예술주간 JBPAF’ 운영

전북문화관광재단, 20일까지 공연장·공연단체 협력으로 가장 전북다운 공연 선사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은 14~20일까지 일주일간 ‘2023 공연예술주간 JBPA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연장과 공연단체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창작환경에서 공연단체의 예술적 창작역량을 강화해 공연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기획했다.

이에 공연단체는 완성도 높은 무대를 통해 관객과 소통하는 기회를 갖고, 도민과 관광객들은 가장 전북다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공연예술주간의 취지다.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 관객 거리두기 공연, 무관중 공연, 온라인 공연으로 진행되던 행사가 올해는 관객과 직접 만나는 자리로 진행되는 만큼, 행사를 기획하는 재단이나 예술단체 또한 기대감이 크다.

공연예술주간에 참여하는 아퀴대표는 “예술단체의 수준 높은 공연을 다양하게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만전을 가하겠다”며 “가족·친구·연인들과 함께 공연으로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좋은 무대를 보여드리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경윤 대표이사는 “관객들에게 좋은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 무대 뒤편에서 땀흘리는 예술가들의 노력에 응원을 보낸다”며 “도민들의 발길 닿는 곳곳에서 예술을 향유하고, 예술가를 만나는 경험을 통해 우리들의 삶이 위로받고 행복해 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역별 공연에 관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www.jbc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창작지원팀(063-230-7443)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창작뮤지컬 ‘하모니’ 전주 온다

영화 하모니 원작… 윤복희 출연 희망 노래

뮤지컬 ‘하모니’가 윤복희와 함께 전주에 온다. 이는 2010년 500만 이상의 관객들을 울린 강대규 감독의 영화 ‘하모니’를 원작으로 한 창작뮤지컬이다.

이 작품은 청주여자교도소를 배경으로 중형의 죄를 짓고 교도소에 수감된 사형수들이 저마다의 아픈 사연을 딛고 함께 합창단을 꾸리며 희망을 노래하는 이야기로 가슴 찡한 감동과 전율, 즐거움을 한꺼번에 느낄 수 있는 뮤지컬이다. 1세대 뮤지컬 배우로 활동 중이며 초연부터 이 작품을 함께해 온 윤복희는 극 중에서 남편과 내연녀를 살해해 사형수가 된 음대 교수, 김문옥 역(役)으로 출연해 전북 관객들의 심금을 울릴 예정이다. 교도소에서 복역 중 아들 ‘민우’를 낳아 기르게 되는 홍정혜 역(役)에는 역시 초연부터 함께해온 우리들의 영원한 마리아 강효성이, 트로트만 불러온 지화자 역(役)에는 최고의 뮤지컬 배우 진도희가 구력있고 환상적인 호흡을 자랑한다. 뿐만 아니라 현수민, 김새하, 이현우, 이해민, 조아라, 오태희, 손안나, 이동구, 조우준 등 베테랑 배우들과 최근 유튜버로도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류비가 방과장 역(役)으로 합류해 한층 더 완성도 높은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오는 10월 13~14일 이틀에 걸쳐 공연되는 뮤지컬 ‘하모니’는 인터파크 티켓, 티켓링크에서 예매 가능하며, 단체 관람(10인 이상)은 뮤지컬 수 컴퍼니(063.228-0356)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아프리카 이채로운 문화 만나요”

전북대박물관, 19~25일 아프리카 문화행사 개최

전북대학교 박물관(관장 김은희)이 아프리카의 이채롭고 다양한 문화를 지역민들과 나누는 문화행사인 ‘아프리카? 아프리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는 19일 오후 2시 아프리카 전통춤 공연으로 시작되는 이 행사는 25일까지 전북대 박물관 중앙홀에서 모로코와 르완다 대사관의 문화자료 전시, 그리고 다양한 체험행사들로 채워질 예정이다.

전통 공연에서는 아프리카 춤의 선구자로 알려진 양문희 대표가 이끄는 ‘릴리(Lily)’팀이 이베문프로젝트로 공연을 선보이며, 코트디부아르 출신 젬베 마스터 코나테 이브라힘이 예술감독으로 참여한다.

또한 주한대사들과의 대화, 르완다 커피 시음, 모로코 전통차 시음, 아프리카 전통의상 체험, 모로코와 르완다 홍보영상 시청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김은희 전북대박물관장은 “문화교류를 통해 아프리카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지역민들과 학생들이 함께 나누며 소통하는 축제의 자리가 될 것”이라며 “글로벌 사회에서 대학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함께 상생하는 특별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오봉 총장은 “역동적이며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아프리카 문화를 지역민들과 향유하며 아프리카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애정들이 이 자리를 통해 더욱 성숙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대학이 글로컬대학으로 도약하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는 국립대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전북대와 주한 모로코 대사관, 르완다 대사관과의 협력을 통해 추진됐다. /장은성 기자

‘아프리카? 아프리카!’ 포스터

한국전통문화전당, 무형문화재 색지장 김혜미자 특별전

천년을 이어온 전통한지가 색지장 김혜미자 선생의 손길을 닿아 고운 빛깔을 뽐낼 전망이다.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동아시아 종이문화특별전의 일환으로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60호 색지장 김혜미자 선생의 특별전을 9월 15일부터 10월 10일까지 전당 2층 전시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색지장 김혜미자 선생이 그간 인생을 살아오며 자식처럼 다듬고 매만져 온 작품 90여 점을 공개하는 자리다. 이를 통해 한지공예의 가치와 문화재로서, 그리고 공예가로서의 열정을 선보인다.

지난 40여 년 한지공예가의 길을 걸으며 전주를 넘어 전국에 한지공예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후학들을 양성해온 김혜미자 선생은 한지공예가로서, ‘색지장’이라는 새로운 분야에서 무형문화재로 인정받은 최초의 인물이다.

김혜미자 선생은 “한지공예는 내게 선물이었다”면서 “아직도 부족함이 있지만, 남은 여생 한지공예를 전수하고 그 가치를 가르치는 일에 힘쓰고 싶다”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서 문화누리카드 사용하세요”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은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에서 문화누리카드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13일 재단에 따르면 제17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는 14~17일까지 장수 의암 공원 및 누리파크 일대에서 개최된다. 이번 축제에서는 2,500석 규모의 셀프식당이 운영,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고품질 한우 등을 문화누리카드로 이용 할 수 있다. 특히 축제장에서 바가지 요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장수군은 푸드코트 입점 업체들과 철저한 사전 협의로 ‘착한가격’을 책정해 모든 음식에 착한 가격을 유지할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김제시, 벽천미술관 소장 나상목 작가 스케치 기획전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전북의 대표 화가 나상목(羅相木, 1924~2001) 작가의 소장품을 선별해 9월 15일부터 11월 12일까지 ‘벽천碧川, 그의 시선이 머문 곳’이라는 주제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벽천미술관에서 기획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나상목 작가의 스케치를 통해 작품에 표현하고자 했던 노력과 고민을 조명하고자 마련하였다. 전시에는 나상목 작가가 기증한 소장품 가운데 다양한 스케치 작품 중 ‘인물’ 17점을 선정해 전시한다.

나상목 작가의 스케치 작품은 산수화 외에 화조화, 인물화, 동물 등 다양한 주제로 다루어졌다. 처음에는 인물을 그리기 위해 많은 인물 스케치와 크로키 등을 묘사했지만, 모델을 구하는 문제가 쉽지 않았다고 한다.

인물 스케치 초기작품을 살펴보면 인물의 특징을 순간적으로 포착하려는 시도가 있다. 그 이후의 작품에서는 이것을 기초로 해서 인물 상체의 의상에서 옷 주름을 축약된 선묘(線描)로 처리하고 있지만, 얼굴 표현은 인물의 예리한 눈동자나 코 등을 입체감이 돋보이는 양감처리를 함으로써 동·서양의 기법을 종합한 절충주의 성격이 보인다.

나상목 작가는 인물 스케치를 그리며 주변에서 흔히 마주칠 수 있는, 그러나 지나치기 쉬운 일상의 대상을 묘사하며 받은 미적 감흥이나 느낌을 그의 의식과 함께 표출시켜 작품을 완성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도내 초등학생 대상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전주 한국문화 콘텐츠 스타트업 기업인 ‘올디(대표 임소윤)’가 한국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AR 탈 필터로 체험하는 나의 부캐릭터’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AR 필터 기술을 활용해 학생들이 가상의 탈을 그려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도내 거주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이번 프로그램은 검무와 국악을 바탕으로 영상기술을 접목하고, 한국 전통 놀이 및 한국 설화를 결합한 복합문화예술교육으로 △아이돌 음악을 국악 곡으로 편곡 후, 검무 댄스 챌린지 촬영 및 편집 △AR 기술 및 휴대전화 등을 활용한 강사와 참여자 간 실시간 소통 수업 △환경을 주제로 한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오는 10월 21일까지 매주 토요일 진행되며, 참여자는 상시 모집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올디 사업 담당자(010-6397-8774)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온가족이 함께 하는 즐거운 하모니

제7회

전라북도 아리울 어버이 합창제

2023년 9월 23일(토) 오후 3시~

전북도청 대강당

주최: (사)전북문화진흥원, 전주매일신문

후원: 전라북도, 전주시

**본 행사는 전라북도, 전주시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합니다.

출연 합창단

마음모아 합창단

김제시립합창단

온고을어머니합창단

전주소년소녀합창단

완주소년소녀합창단

완주여성합창단